

웨스터 민스터신앙고백서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1항

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시되 행위 언약의 의미로 주셨다. (1) 그 언약은 아담 뿐만 아니라, 아담에게 대표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서도 순종(아담 안에서)을 요구하시는 구속력을 가졌다. 이 순종은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정확한 영구적(계속적)인 순종이다. (2) 아담이 이 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생이 약속된 반면에,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망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되었다. (3)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셨다 (창 1:26~27; 2:17; 전 7:29; 욥28:28; 롬 2:14~15; 5:12,19; 10:5; 갈 3:10,12).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2항

이 율법(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도덕률)은 아담의 범죄 후에도 의(義)의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하였었다. 그러다가 그 도덕률 자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의 형태로 주어진다. 즉,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인데 (출 34:1 ; 신5:32; 10:4; 롬 13:8~9; 약 1:25; 2:5,10~12),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, 다음 여섯 가지는 인간에게 대하여 우리의 행할 도덕이다 (마 22:37~40).

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(출애굽기 34:1)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3항

위의 도덕적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아직 미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(意識的)인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. 그것은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인데 두어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.

(1) 예배에 관한 것. 이것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베푸실 은혜와 그 행동과 그의 고난과 공로에 대하여 예표하는 모형들이다 (히 10:1; 갈 4:1~3; 골 2:17; 히 9:1~29).

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(히브리서 10:1)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3항

(2) 교훈에 관한 것 (고전 5:7; 고후 6:17; 유 1:23). 여기서도 도덕적 책임을 말해 주기도 한다.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 (골 2:17; 단 9:27; 엡 2:15~16; 골 2:14,16).

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
라 (골로새서 2:17)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4항

하나님께서 (옛날)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다. 그 법의 효용은 그 시대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끝났다. 그 법의 정신은 공정성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요시되지만, 그 법의 형태는 지금 더이상 구속력(拘束力)을 가지지 못한다 (창 49:10; 출 21; 22:1~29; 마 5:17, 38~39; 고전 9:8~10; 벰전 2:13~14).

**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
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
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(창세기 49:10)**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5항

한편 도덕법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 영원토록 순종을 요구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(롬 13:8~10; 엡 6:2; 요일 2:3~4, 7~8).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만 아니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(약2:10~11).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도덕법을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폐지 하시지 않고 도리어 강화하셨다 (마 5:17~18; 5:19; 롬 3:31; 약 2:8).

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(마태복음 5:17~18)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6항

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 아래 속하지 않으므로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 함이 되거나 혹은 아주 망하도록 정죄 되지 않는다 (롬 6:14; 행 13:26; 롬 8:1; 갈 2:16; 3:13; 4:4~5). 그러나 그들에게나 일반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크게 유익하게 사용되는데, 불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.

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(로마서 6:14)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6항

- (1) 생활 지침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. 이에 준하여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며, 또 제재도 받아야 한다 (고전 7:19; 시 119:4~6; 롬 7:12,22,25; 갈5:14,16,18~23)
- (2)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품과 심령과 생활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실을 발견케 하며 (롬 3:20;7:7),

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
(고린도전서 7:19)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6항

- (3)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자신을 점검함으로 더욱 죄책을 느껴 겸손해지며,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게 되며 (약1:23-25; 롬 7:9,14, 24),
- (4)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절실히 찾게 되고, 또한 그의 온전하신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신 속죄의 의로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 (갈 3:24; 7:24~25; 8:3~4).

누구든지 도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(야고보서 1:23)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6항

그리고 거듭난 자들 (참 신자들)에게도 율법은 필요하다.

(1) 죄에 대한 율법의 금령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옛 성품의 소원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고 (시 119:101, 104, 128; 약 2:11),

(2) 불순종에 대한 율법의 경고들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 값을 보여 주며, 따라서 현세에 그들이 죄 때문에 무슨 고난을 기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(그들이 참된 신자들인 만큼 율법의 저주, 곧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) (스 9:13; 시 89:30~34).

**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
아니 하였사오며 (시편 119:101)**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6항

(3) 율법의 약속들이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며, 또한 그들은 순종의 결과로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(시 37:11; 레 26:1,10,14; 시 19:1; 마 5:5; 고후 6:16; 엡 6:2~3). 그러나 이 기대는 행위 계약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(눅 17:10; 갈 2:16).

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
(누가복음 17:10)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6항

율법의 사역이 선행은 장려하고 악행은 제지시키는데,
 그것이 율법 아래서만 국한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.
 은혜 아래서도 율법의 사역은 계속된다 (히 12:28; 시
 34:12~16; 롬 6:12; 히 12:29; 벰전 3:8~12).

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
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
 지니 (히브리서 12:28)



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/ 7항

위에 진술된 율법의 용도가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지 않고 도리어 서로 거기에 잘 응합(應合)하게 된다 (갈 3:21). 다시 말하면,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설득시켜서 그로 하여금 자의로 순종하도록 하신다. 그렇게 된 신자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구를 자유로이 또는 기쁘게 행하게 된다 (렘 31:33; 겔 39:27; 렘 8:10).

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
(예레미야 31:33)

